현대차가 CES에서 공개할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 티저 이미지.

현대차, 자동차 이동성 개념 재정의

걸어다니는 콘셉트카 티저 공개

CES서 엘리베이트 콘셉트카 선봬

현대자동차가 오는 7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9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를 통해 처음 선보일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티저 이미지를 2일 공개했다.

엘리베이트 콘셉트카는 기존 이동수단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개념의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로, 현대차의 로봇 및 전기차 기술이 적용됐다. 지난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문을 연 현대차그룹의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현대 크래들'에서 개발됐다.

이번 티저 이미지 속 엘리베이트 콘셉트카는 바퀴 달린 로봇 다리를 이용해 기존 이동수단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위험한 지형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이번 콘셉트카를 통해 이동성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미래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CES의 현대차 미디어 행사에서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프로토타입이 작동하는 모습을 최초 공개한다. 이 자리에서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르노삼성·쌍용차, 기해년 맞아 프로모션 진행

신차 구매고객 '황금돼지 골드바' 등 증정

국내 완성차 업계가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는 1월 한 달 간 신차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금융상품을 포함한 노후 차량 지원금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해(亥)피뉴이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5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 보유고객이 르노삼성자동차 모델(전기차, 마스터, QM6 가솔린 제외)을 구입하면 차종 별로 ▲SM6 GDe 및 LPe 트림 50만원, SM6 프라임 및 TCe 트림 30만원, ▲SM3, SM5, SM7, QM3, QM6 디젤, 클리오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QM6와 SM6의 경우 트림별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신차 구매 고객에게 황금돼지 골드바를 선물하고 노후경유차를 대차하는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클린 익스체인지 100'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구매혜택을 제공한다.

'클린 익스체인지 100' 프로그램을 통해 쌍용차 전 모델을 100만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시행 중인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에 더해 노후경유차 보유고객(2008년 이전 등록, 폐차 조건)이 신차 구매 시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쌍용차는 G4 렉스턴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1년 365일 안심할 수 있는 'Safety Promise 365'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구매 후 차량가격 30% 이상의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000만원을 지급(본인 과실 30% 미만시)한다.

렉스턴 브랜드(G4 렉스턴&렉스턴 스포츠)는 선수율 제로 4.9~5.9%(36~72개월) 저리할부를 운영하며, G4 렉스턴 구매 시 최대 100만원(할부기간 72개월, 1000만원 이상 이용 시)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쌍용차는 기해년 새해 선물로 티볼리 브랜드(아머&에어) 구매 고객 2019명(선착순)에게 황금돼지 골드바(1돈)를 증정(20만원 할인 선택 가능)한다. 코란도 투리스모를 일시불 구매하면 200만원, 선수율 제로에 3.9% 할부(최장 60개월)를 이용하면 각각 150만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쌍용차 G4 렉스턴

로템, 중동서 1500억 수주 낭보

이집트 카이로 2호선 사업
전동차 48량 납품·유지보수

현대로템 카이로 2호선 전동차 조감도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이집트 카이로 2호선 전동차 사업을 낙찰받았다

현대로템은 이집트 교통부 산하 터널청으로부터 1508억원 규모의 카이로 2호선 전동차 48량 납품과 유지보수 사업을 낙찰받았다고 2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체 20개 역사 총연장 21.6㎞의 카이로 2호선에서 운행될 전동차 48량을 오는 2021년까지 터널청에 납품할 예정이다. 2031년까지 차량의 유지보수도 함께 수행한다.

현대로템은 이집트에서 지난 2012년 카이로 1호선 전동차 180량, 2017년 카이로 3호선 전동차 256량 사업을 수주했다. 2016년 납품이 끝난 1호선 180량의 경우 시승 및 영업시운전 결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영업운행 시기를 계획 대비 4주가량 앞당기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3호선은 2025년에 모두 납품이 완료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사업 낙찰로 1호선부터 3호선까지 3개 노선을 운영 중인 카이로 지하철 모든 노선에 차량을 공급하게 됐다. 현지에서 꾸준한 수주를 통해 쌓아온 사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사업 수주에도 보다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이로 2호선 48량은 8량 1편성의 총 6개 편성으로 구성되며 최고 80㎞/h의 운행속도를 낼 수 있다. 현대로템은 이집트의 더위에 대비해 객실 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에어컨을 탑재하는 등 카이로 1, 3호선 전동차 사업을 수행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운영에 최적화된 고품질 차량을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카이로 1, 3호선 전동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현지에서 호평 받은 결과 이번 사업까지 낙찰받을 수 있었다"며 "고품질의 차량을 납품해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추가 사업 수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한샘, 전 지점서 '황금돼지' 이벤트

한샘은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한샘디자인파크 서울 용산점에서 황금색 돼지저금통 증정 이벤트와 전 매장에서 황금돼지 미니 골드바가 걸린 '숨은 황금돼지 찾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용산점에서 단독으로 펼쳐지는 이벤트는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모든 매장에서 열리는 이벤트는 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각각 진행한다. 한샘 모델들이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한샘

라이엇 게임즈

박준규 한국대표 취임

라이엇게임즈는1월 1일부로 박준규 신임 한국대표(사진)가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대표는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2004년 KPMG에 입사했으며, 2011년에는 CJ E&M 글로벌 사업팀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4년부터 라이엇 게임즈에 합류해 퍼블리싱 조직 총괄업무를 담당해 왔다. /김나인 기자 silkni@

항공업계, 유가하락 틈타 '몸집 불리기'

국제유가 배럴당 40달러 대로 급락
비용절감 효과로 노선확대 등 경쟁

국제유가하락과 항공수요 증가로 새해 국내 항공사들이 '몸집 불리기' 경쟁에 돌입했다. 올해는 신규 LCC(저비용항공사)들의 면허 승인도 예정돼 있어 항공시장 내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최근 두 달 동안 37% 급락하며 배럴당 40달러대로 떨어졌다. 유류비는 항공사 전체 매출의 27%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 각 항공사들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로 새 항공기 도입과 노선 확대 등을 시도하고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5월부터 개시된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효과가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미국 내륙을 관통하는 연결편을 확보한 대한항공은 북미 노선에서의 사업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의 탑승수속 카운터를 델타항공과 공동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오는 4월부터 각각 인천~보스턴과 인천~미니애폴리스 노선을 신규 취항하는 등 미주 내 290여 개 도시와 아시아 내 80여 개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노선 스케줄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이밖에 대한항공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를 국내 항공사 최초로 주관한다. IATA 연차총회는 '항공업계의 유엔 회의'라고 불리는 행사로, 세계 항공사 최고경영자들과 항공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 노선의 수익 증대가 기대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24개 도시에 31개 노선을 운항하는 등 중국 노선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40만4256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5.1% 늘었다.

LCC(저비용항공사)들도 새 항공기 도입과 함께 취항지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항공은 최근 미국 보잉의 B737-800 항공기 1대를 추가 도입해 보유 항공기가 총 39대로 늘었다. 2022년부터는 보잉의 차세대 기종인 'B737 맥스8' 50대를 순차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보잉 맥스8 기종을 국내에 처음 들여오면서 본격적으로 중거리 노선 운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도 올해 맥스8 4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대를 순차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올해에는 신규 LCC도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면허 발급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에 면허 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모두 4곳(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에어필립)이다. 면허가 승인되면 올해 하반기 혹은 2020년 상반기부터 비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우 기자